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적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명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fluence of the Adaptation to Social and Cultural Adjustment in South Korea: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Myoung-S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탈북이주민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 차별감 및 편견을 극복하는데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랜 기간 거주해도 그들에 대한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며 대부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밝혀졌다. 이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적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사회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며 이밖에 외부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self-efficac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ffect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al culture. To this end, 209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Incheon, Wonju, or Ansan were surveyed. The results obtained showed shorter residence in South Korea and age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fear of South Korean society and awareness of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age and duration of residence were not found to affect relations between social adaptation and perceptions of low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or prejudice by defectors, which suggests defectors often live in South Korea for a considerable time without overcoming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The factor that most influenced adaptation to social culture was self-efficacy, which affected not only socio-cultural adaptation but also self-sufficiency and the ability to promote oneself,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elf-Efficiency, Economic Adaptation, South Korean Social Adaptation, South Korean Cultural Adaptation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 첫째는 한민족으로 북한사회를 탈북하여 남한사회로 건너온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둘째는

*Corresponding Author : Myoung-Sun Kim(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Tel: +82-32-434-8288 email: Kmsun3018@naver.com

Received December 7, 2018

Revised January 16,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남한주민과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한 북한한 주민간 어떻게 통합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문화 적응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 따라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의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그들의 내적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적응을 돕는 것이다[1].

1997년 탈북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보호 및 정착지원)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테면 정착금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지급, 취업보호 담당관제도를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 의료보호, 학비지원 및 입학특혜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지원은 그들의 탈북동기가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한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경제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대부분이었다[2].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응의 어려움은 통일부나 노동부지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3]. 취업을 하여도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다[4].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부적응은 모든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빈곤선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그들의 자기효능감이 경제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제적 적응이

남한사회문화 적응과정에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 정도에 어떤 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그 요인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역할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삶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6-7].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적절히 조직화하여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리 목표성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역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8].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직무성취도, 경력몰입, 생산성, 학습동기, 업무수행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업무성과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지속하는데 방향성을 갖고, 높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밝혀졌다[9-10].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내적기준에 위해 더 성공하려고 갈망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어떠한 결과를 수반할 것인가라는 평가를 내림으로서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시험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다[12-13].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문화적응은 자기효능감의 적절한 대처방식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경제적 적응을 하는데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14]. 즉 자신의 대한능력을 확신하여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만족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 등의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개인의 동기를 촉진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문제해결에서 정적영향이 나타났다[15].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맡은 업무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등에서 유능감을 가질 때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정도의 영향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스트레스에서도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결정하는 행동적인 원동력으로 나타났다[16]. 자기효능감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완화시켜서 개인이 외상 및 다양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적응에서의 스트레스는 외상 및 역경의 회복력을 감소시키며 자기효능감은 회복력을 증가시켰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의력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17].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인지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생활하는데 나타나는 장애요인에 대응되는 방법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더욱 사회문화 적응력을 발달시킨다. 북한이탈주민이 자기효능감이 높을때 차별감을 낮게 느끼고 심리적인 적응력을 높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적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8].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그들이 남한사회문화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 사태를 경험하며 해결하여 나감으로서 자신이 직접 신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남한사회문화 적응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추정가능하다.

2.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이주민이나 난민과 다른 점은 모국의 건달 수 없는 경제·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탈북을 감행하면서 심리적·신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19] 자신에 대한 확신과 통제가 상실되어 남한정부의 지나친 의존성, 생활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수동성의 행동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0]. 또한 북한이탈주민 절반 가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로 확인되었으며[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폭행, 강간, 테러 등에서 생명을 위협받았던 경험으로 극한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질환이다[22]. 과거의 정신적 충격이 클수록 사회적응이 어렵고[23], 남

한에서 정착하는데 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마비나 회피 등의 각성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사회에서 품행장애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범죄행위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2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보호 그 이상이다. 현재까지 적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으며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서적으로 흥분을 잘하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문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게 지각하는 경우가 높다고 나타났다[26].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상처와 취약성에 자아를 방어하는 요소로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의 의의와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적응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응하거나 알맞게 됨”이다. 적응은 적응주체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완전한 적응을 위해서는 적응주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내면의 심리적인 변화까지 포함한 내외적 두 가지 요인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8]. 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스스로 조작하는 행위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며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문화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개념으로, 생태학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대인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체계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29]. 또한 개인이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며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신을 맞추는 활동이나 또는 과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30]. 개인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며 내적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외부변형(alloplastic)이라고 하며, 외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내부변형

(autoplastic)이라 한다[31].

사회적응에 대하여 이주자가 정착사회의 제도와 조직에 참여하고 조직에서 갖게 되는 지위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의 만족과 환경에 적절한 대처능력을 포함한 정착 사회의 구성원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변화까지도 포함하였다[3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이라 함은 직업을 갖고 생계적 안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심리적으로 남한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일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사회문화적응은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주변환경 요인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으로 남한사회적응과정에서 정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의 토대인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4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적응

경제적 적응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또는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일어삼’을 의미한다. 개인이 독립된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직업을 갖으며 일정한 소득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등을 터득해 나가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33]. 경제적 적응력이 높은 이주민은 정착사회와 진입이 빠르며 이에 따른 정착지에서의 불이익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이주민이 정착사회와의 진입이 늦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개인은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게 된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은 점차적으로 자기능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은 낮아져 가고, 적응에 대한 의지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34].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들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서 당면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경제적 적응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만족감을 갖을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으며,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35].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기준하여 경제적 적응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적응력이 높고 이주국 체류기간이 길며 기혼자일수록 경제적 적응이 높았다.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 정도가 노동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시기가 빠르면 본국인과의 경제통합을 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

현재까지 우리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해온 정책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적응 중심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 이냐에 위해 남북의 사회통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37].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건강만족도, 소득수준, 취업여부, 취업가구의 수 등이며 장기적인 경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근속, 안정적인 고용형태, 취업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탈북민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자격지심, 취업정보 부족, 취업을 하여도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 역시 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현재 정부의 경제적 적응정책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시기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39].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은 먼저 그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 만족을 느끼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경제적 적응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자기효능감과 남한사회문화 적응관계에서 경제적 적응의 조절효과

경제적 적응은 모든 형태의 적응에서 나타나는 요인으로[40] 경제적 만족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생활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나 능력을 추진해 나가는 동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1].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관계를 보면 자아정체성,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에 심리적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켰다. 결국 경제적 적응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였다[42]. 반면, 개인적 확신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며 사회생활에서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해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동동기를 촉진시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문제해결 방법에 정적영향이 나타났다[43-44].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업무지식, 필요로 하는 조건을 통한 사회적 기술이나 정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근무여건 등이며 이러한 요인은 직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먼저 경제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직업만족과 정기적인 수입이 중요하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경제만족을 느낄 때 경제적 성취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립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적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해 가면서 낮아진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며 고취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Fig.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서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능력효능감과 업무효능감이며[45], 경제적 적응의 구성요소는 직업만족도와 월수입을 살펴보고자 한다[46].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문화적응의 어려움은 한샘(2011)의 항목을 통해 사회적응과 문화적응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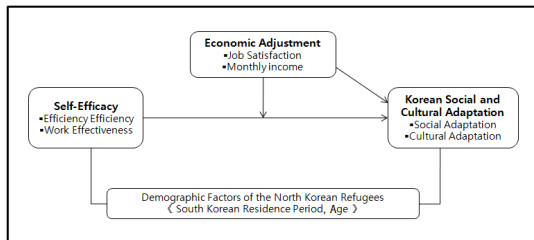


Fig. 1. framework of analysis

3.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한

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통일 한마음 지원센터」의 학생들과 그들의 지인들인 북한이탈주민에게 35매를 회수하였다. 서울에서는 통일부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의 2기 졸업생들과 그들의 지인들인 북한이탈주민에게 102매를 회수하였다. 안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45매를 받았다. 이밖에 원주에서는 「행동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에게서 25매 회수하였다. 배포설문은 응답자의 익명 작성 이후 직접 전달 또는 우편으로 회송받는 전달 방식을 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2월 16일에서 5월 26일간 3개월 1주일 진행되었다. 응답신청은 총인원 209명에서 2명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문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총매 207개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에 과학적 표본추출이나 선정이 쉽지 않아서 주변의 지인이나 그들과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부탁하여 설문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만, 설문조사 시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설문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언어의 오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은 임소희(2013) 연구에서 제시한 능률효능감과 업무효능감 7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①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대부분 달성 할 수 있음 ②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음 ③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 ④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 ⑤어려움이 여러 번 닦쳐와도 나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⑥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음 ⑦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무슨 일이든 상당히 잘 할 수 있음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적응은 유시은(2009)의 경제적 적응과 관련있는 4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①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②현재 하는 업무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가 ③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④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귀히 가진 지식과 기술

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남한사회문화적응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회문화의 어려움에 대해 한샘(2011)의 8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①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②남한주민에게서 차별을 느낌 ③직업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④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낌 ⑤남한사회의 법과 제도에 적응이 안됨이며 문화적응 문항으로는 ⑥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한주민들과 접촉을 꺼림 ⑦남한문화에 적응이 안됨 ⑧남한에서 사용하는 한자나 외래어의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고 이 문항들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적절한 용어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10명 대상으로 Pre-Testff 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남자 57명(27.8%), 여자 148명(72.2%)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40대(67명:33.0%), 30대(65명:32.0%)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10대(4명:2.0%), 60대(4명:2.0%)의 경우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북한학력은 중졸(124명:61.7%)이 가장 많았으며, 박사원 중퇴와 졸업(1명:0.5%)이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남한 학력은 대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2명, 35.9%),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1명, 0.9%). 남한에서의 거주형태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월등히 많았으며(125명, 62.8%), 북한의 가족 여부에 대해 남아있는 경우(168명:82.0%)가 남아있는 않는 경우(37명, 18.0%)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보였다.

4. 분석결과

4.1 탐색적 및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경제적 적응, 남한사회적응이며, 이러한 변인들의 세부 변인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1에서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96,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서 적절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자기효능감 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적재치 모두 0.700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단일요인에 대해 ‘자기효능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Efficacy Factors

question item	Factor 1
① I can achieve most of my goals.	.875
② When you're in trouble, I am sure I can achieve that.	.850
③ Even if you have a lot of trouble, I will be able to overcome it successfully.	.850
④ I have the ability to get what I care about. Think.	.818
⑤ Even if things are not so good, I can do quite well.	.792
⑥ I can do most of the work better than others.	.782
⑦ I'll try, I believe that anything can succeed	.759
factor name	Self-Efficacy

KMO Bartlett : .896, p<.000

경제적 적응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20,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적절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적응 요인의 세부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별 적재치의 경우 모두 0.800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에 대해 ‘직업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경제적 적응이라는 요인 중 ‘월수입’ 요인 또한 고려하여 해당요인의 경우 실질적인 수입액을 변인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따로 요인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conomic Adaptation Factors

question item	Factor 1
① I'm not sure I'm gonna tell you How satisfied are you?	.905
② Do you have much interest in your current work?	.900
③ Do you think the work you are doing is important?	.840
④ Are you using your knowledge and skills well in your current work?	.838
factor name	job_satisfaction

KMO Bartlett : .820, p<.000

남한사회적응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61,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사회적응’ 요인에 대해 세부 문항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응’과 ‘문화적응’ 등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The Analysis of Exploratory Factors on the Adaptation of South Korea

question item	Factor 1	Factor 2
①People have prejudices about me	.852	.226
②People don't tell me directly, but they feel discriminatory	.838	.150
③I feel that my social status is low because I am from North Korea.	.739	.290
④There are difficulties in following the job and work life	.690	.358
⑤I am not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097	.840
⑥There are times when people are reluctant to contact with fear of others	.315	.785
⑦There are difficulties due to the unfamiliar language used in South Korea (Chinese or foreign language)	.317	.757
⑧It is not adapted to South Korean culture	.522	.614
factor name	social adaptation	culturl adaptation

KMO Bartlett : .861, p<.000

본 연구의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고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Table 4을 통해 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Cronbach Alpha 값이 0.80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기서 경제수입 요인의 경우,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변인이 아닌, 수입 금액을 변인으로 활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Cronbach Alpha
self-efficacy	0.918
job satisfaction	0.892
Social Support_Special Relations	0.898
Social Support_Family Relations	0.905

Social Support_Friendship	0.867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0.844
South Korea Soci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0.832

4.2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변인들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한 거주년도, 연령대에 따라 남한사회문화적응도와 경제적응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에 따른 문화적응·사회적응·직업만족·경제수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Table 5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문화적응의 경우 10~20대 연령대와 40대 연령대가 30대와 50~60대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응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직업만족의 경우 이와 반대로 50~6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입은 연령대에 따라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수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Cultural Adaptation/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Social Adaptation/Job Satisfaction/Economic Income Difference

division	N	average	standard table
cultural adaptation	10~20	44	3.38
	30	65	3.28
	40	67	3.39
	50~60	27	3.30
	sum	203	3.34
social adaptation	10~20	44	3.24
	30	65	3.29
	40	67	3.16
	50~60	27	2.99
	sum	203	3.20
job satisfaction	10~20	19	3.49
	30	50	3.33
	40	48	3.45
	50~60	17	3.59
	sum	134	3.43
economic income	10~20	17	1.97
	30	40	2.06
	40	38	2.18
	50~60	19	2.45
	sum	114	2.1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년도에 따른 문화적응·사회적응·직업만족·경제수입의 차이를 Table 6을 통해 살펴

보면, 문화적응의 경우 거주년도가 오래될수록 높은 적응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반면, 직업만족과 경제수입의 경우, 2년 이하와 10년 이상일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응의 경우 거주년도에 따른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Cultural Adaptations/Age Social Adaptation/ Job Satisfaction/ Economic Income Difference

division		N	average	standard table
cultural adaptation	2 below	19	2.80	.56
	2~4	20	3.00	.58
	4~6	58	3.25	1.05
	6~8	36	3.49	.83
	8~10	46	3.45	.75
	10 stomach	25	3.78	.67
	sum	204	3.34	.86
social adaptation	2 below	19	3.39	.71
	2~4	20	3.05	.61
	4~6	58	3.13	.96
	6~8	36	3.00	.74
	8~10	46	3.35	.71
	10 stomach	25	3.32	.73
	sum	204	3.20	.79
job satisfaction	2 below	2	4.20	1.13
	2~4	11	3.60	.59
	4~6	47	3.25	.89
	6~8	22	3.49	.85
	8~10	29	3.54	.61
	10 stomach	24	3.41	.55
	sum	135	3.42	.76
economic income	2 below	2	3.25	2.47
	2~4	8	2.31	.80
	4~6	42	2.04	1.04
	6~8	21	2.10	.78
	8~10	23	2.11	.64
	10 stomach	20	2.43	1.30
	sum	116	2.17	.99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경제적 적응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H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Table 7.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dization_ 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933	.388		2.405*	.017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20	5.028***	.000
	age group	-.043	.054	-.045	-.797	.426
independent_ variables	self- efficacy	.398	.080	.243	4.977***	.000

input method/ R²=.283, p<.000

분석결과 Table 8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5),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남한 사회문화적응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Table 8.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model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dization_ 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1.319	.386		3.429**	.001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2	.001	.118	1.704	.090
	age group	-.042	.055	-.055	-.778	.437
independent_ variables	self- efficacy	.433	.079	.372	5.465***	.000

input method/ R²=.181, p<.000

가설 H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결과 Table 9와 같다. 직업만족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p <.001). 경제적 수입은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Table 9. The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on Cultural Adapta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_coefficient		standardiz ation _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901	.361		2.496*	.014	
controlva riable	Education	.239	.078	.276	3.075***	.003
	residence_ period	.004	.001	.261	3.315***	.001
	age group	-.027	.068	-.031	-.400	.690
independ ent_var iables	job satisfaction	.516	.093	.474	5.573***	.000
	economic income	-.127	.074	-.149	-1.711	.090

input method/ R²=.431, p<.000

분석결과 Table 10와 같다. 직업만족이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p <.001), 경제적 수입의 경우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즉, 직업만족에 한해서 해당 가설이 채택되었다.

Table 10. The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on Social Adjustment

model	nonstandardization _coefficient		standardiz ation _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1.125	.345		3.266**	.001	
control_ variable	Education	.141	.074	.182	1.907	.059
	residence_ period	.002	.001	.123	1.473	.144
	age group	.013	.064	.017	.207	.837
independ ent_var iables	job satisfaction	.521	.088	.532	5.888***	.000
	economic income	-.183	.071	-.238	-1.576	.111

input method/ R²=.358, p<.000

가설 H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효능감과 남한사회문화적응관계에서 경제적 적응은 조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결과 Table 11과 같다. 첫번째 모형과 두번째 모

형이 유의미하고 세번째 모형에서 자기효능감*경제적 만족(상호작용변인)은 통계적으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p >.05). 즉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에서 경제적 만족이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The Valid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_coefficient		standar dization _coeffic ient	t	VIF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2.409	.261		9.235***		
1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24	5.028***	1.100
	age group	-.043	.054	-.052	-.797	1.120
independ ent_va riables	self-efficacy	.398	.080	.317	4.977***	1.074
F=18.751*** R ² =0.283(ΔR ² =0.000)						
(constant)	2.690	.295		9.108***		
2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4	.001	.257	3.668***	1.062
	age group	-.030	.058	-.036	-.517	1.050
independ ent_va riables	self-efficacy	.404	.094	.339	4.292***	1.346
	job satisfaction	.224	.090	.212	2.501*	1.546
F=18.367*** R ² =0.425(ΔR ² =0.142)						
(constant)	2.661	.295		9.013***		
3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4	.001	.256	3.655***	1.062
	age group	-.028	.058	-.034	-.482	1.051
independ ent_va riables	self-efficacy	.381	.096	.319	3.977***	1.396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149	.113	-.093	-1.317	1.079
F=15.686*** R ² =0.433(ΔR ² =0.008)						

분석결과 Table 12와 같다.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며 두번째 모형에서 경제적 수입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번째 모형에서 자기효능감*경제적 수입(상호작용변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p >.05). 즉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경제적 수입이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Income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	t	VIF	
		_ coefficient	standard_	ization			
		B	error	coefficient			
(constant)		2.409	.261		9.235***		
1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5	.001	.324	5.028***	1.100
		age_group	-.043	.054	-.052	-.797	1.120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398	.080	.317	4.977***	1.074	
	economic_income						
F=18.751*** R ² =0.283(ΔR ² =0.000)							
(constant)		2.514	.278		9.028***		
2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5	.001	.305	4.582***	1.178
		age_group	-.050	.054	-.060	-.914	1.135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397	.080	.316	4.965***	1.074	
	economic_income	.066	.062	.073	1.074	1.212	
F=15.244*** R ² =0.287(ΔR ² =0.004)							
(constant)		2.499	.284		8.807***		
3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5	.001	.309	4.545***	1.218
		age_group	-.047	.055	-.057	-.858	1.162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397	.080	.316	4.945***	1.075	
	self-efficacy* economic_income	-.026	.096	-.019	-.276	1.208	
F=12.654*** R ² =0.288(ΔR ² =0.001)							

분석결과 Table 13와 같이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고, 두번째 모형이 유의미하며 세번째 모형에서 이전 모형에 비해 R² 값이 1.2%증가하였다. 자기효능감*직업만족(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하여(p < .05),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응에 있어서 직업만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The Valid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	t	VIF	
		_ coefficient	standard_	ization			
		B	error	coefficient			
(constant)		2.923	.258		11.313		
1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17	1.704	1.100
		age_group	-.042	.053	-.054	-.778	1.120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433	.079	.372	5.465***	1.074	
	job_satisfaction						
F=10.508*** R ² =0.181(ΔR ² =0.000)							
(constant)		2.985	.300		9.961***		
2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30	1.673	1.062
		age_group	-.003	.059	-.004	-.046	1.050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242	.096	.220	2.528**	1.346	
	job_satisfaction	.350	.091	.359	3.845***	1.546	
F=10.623*** R ² =0.300(ΔR ² =0.119)							
(constant)		3.017	.299		10.088***		
3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32	1.707	1.062
		age_group	-.005	.059	-.007	-.087	1.051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269	.097	.245	2.773**	1.396	
	self-efficacy* economic_income	.169	.115	.214	2.467*	1.079	
F=9.294*** R ² =0.312(ΔR ² =0.012)							

분석결과 Table 14과 같다.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고, 두번째 모형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경제적 수입(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 > .05),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경제적 수입이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Income

model	nonstandardization_coefficient		standardization_coefficient	t	VIF		
	B	standard_error	beta				
(constant)		2.923	.258		11.313		
1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17	1.704	1.100
		age_group	-.042	.053	-.054	-.778	1.120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433	.079	.372	5.465***	1.074
F=10.508*** R ² =0.181(ΔR ² =0.000)							
(constant)		2.872	.276		10.389***		
2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27	1.778	1.178
		age_group	-.038	.054	-.050	-.713	1.135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434	.079	.372	5.461***	1.074
economic_income		-.032	.061	-.038	-.522	1.212	
F=8.429*** R ² =0.182(ΔR ² =0.001)							
(constant)		2.876	.282		10.205***		
3	control_variable	residence_period	.002	.001	.126	1.730	1.218
		age_group	-.039	.055	-.051	-.715	1.162
	independent_variables	self-efficacy	.434	.080	.372	5.447***	1.075
self-efficacy* economic_income		.008	.095	.006	.081	1.208	
F=6.988*** R ² =0.182(ΔR ² =0.000)							

결론적으로 Table 1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적응에서는 직업만족이 자기효능감과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조절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이 남한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남한사회의 한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만족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15. Comprehensive Hypothesis

hypothesis	hypothetical content	adoption or not	
		cultur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H 1.	The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will be a positive factor in their adaptation to society and culture.	adoption	
		adoption	adoption
H 2.	The economic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will be a positive factor in their adaptation to social culture.	partial adoptio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H 3.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daptation will be a factor in the South Korean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partial adoption	
		×	job satisfaction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내적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적응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또한 각각의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적응력을 높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사회문화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적응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의 내적요인이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그들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은 외부의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문제해결 측면을 먼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능력효능감으로 나타나며 경제적 적응에서는 직업만족도가 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에서 업무효능감, 경제적 적응에서 월수입의 경우 남한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적응을 시기별로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을 남한사회 초기 접촉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지역의 거주지 배정을 받게 되며 이를 갈등시기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사회에 대한 각종 정보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실은 갈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는 현재 각 지역내 하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착도우미 체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간구된다. 그들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 근접에서 볼 수 있기에 언어 습득과정과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이탈주민 적응과정에 투입하여 지역정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도우미 교육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후 갈등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해결시기라고 볼 때 이때는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을 갖게 되는 단계로서 본격적인 적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의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갖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과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남한사회로 이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활성화 형성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사회문제나 부적응적인 행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와 문화적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의 핵심적인 방안은 그들의 내적 힘을 먼저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남한문화와 접하는 하나원 입소 때부터 지역사회로 나오기 전까지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모색되는 바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선행연구는 그들의 사회적응과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체계별로 분류하여 연구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간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아서 적응력을 높이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 사회적응과 문화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문화적응 정책방안에 대한 모색의 길을 밝혔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Y. H. Kim.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mental health department social work, 22: pp.149-180.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42-2018.2011.00615.x>
- [2] E. H. Song. Self-esteem and economic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 "Pyeongkam Research," 14(4): p.16. 2013.
DOI: <https://doi.org/10.1016/j.srt.2013.07.012>
- [3] S. Y. Pean. "A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p.37. 2008.
DOI: <https://doi.org/10.15801/je.1.80.201103.137>
- [4] B. Y. Kim and S. H. Jung "A Study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Vocational Train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A Study on the Vocational Ability and Development, 11(2): pp.71-96. 2008.
DOI: <https://doi.org/10.1111/j.1748-3131.2012.01224.x>
- [5] J. M. LIM.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mental health department social work, 33: pp.61-84. 2008.
DOI: <https://doi.org/10.15855/swp.2008..33.61>
- [6] J. R. Park. The Effect of Childcare Practice on General Self-Efficacy and Childcare Efficacy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he Korean Childcare Studies, 28: pp.97-135. 2009.
DOI: [10.17329/kcbook.2009..28.004](https://doi.org/10.17329/kcbook.2009..28.004)
- [7] Lazarus, R. S. and Folkman, S.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1984.
DOI: <https://doi.org/10.3133/wri844029>
- [8] George, L.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course, Aging, stress and healt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p.241-267. 1989.
DOI: <https://doi.org/10.1176/ps.42.1.98>
- [9] E. Y. Park, E. G. Kim.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a career therapist, A Study on the Korean Contents Society, 8(10): pp.208-216. 2008.
- [10] Judge, Timothy A., Bono, Joyce E.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 Trait-Self 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pp.80-92. 2001.
DOI: <https://dx.doi.org/10.1037/0021-9010.86.1.80>

- [11] Bandura, A.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pp.344-358. 1978.
DOI: <https://dx.doi.org/10.1037/0003-066x.33.4.344>
- [12] J. M. Chal, J. H. Li. Relative Dispos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fluence of Personal Identity and Social Ident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Korea*, 18(1): pp.41-63. 2004
- [13] C. O. Park, H. E. Ahn.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forg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voidance and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A study of counseling*, pp.1891-1905.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1891>
- [14] T. D. Kim.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A Study on Youth*, 17(9): pp.277-296. 2010.
- [15] J.Y.Kim, G.H.Chol, W.J.Lu. PTSD announc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 of self-Elastic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Social Welfare Research*: 43 (4): pp.343-367. 2012.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4.343>
- [16] S. H. Lim. "The Prediction Model of South Korean Social Adjust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Resilience-Integration Model," A Ph.D. dissertation from Kyunghye University, pp.73-92. 2013.
DOI: <https://doi.org/10.15801/je.1.80.201103.137>
- [17] Pearlin. "Social Structure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In. p.52. 1997.
DOI: <https://doi.org/10.1177/109019818501200110>
- [18] W. T. Jeon. "The adaptation and self-identity according to the main social background of defectors Research on," *Unification Studies*, 1(2): pp.109-167. 1997.
DOI: <https://10.15818/ihss.2017.18.1.333>
- [19] J. Y. Sa. "PTSD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in North Korean Defector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South Korea." A Master's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p.36. 2009.
DOI: <https://doi.org/10.1002/jts.21783>
- [20] H. J. Song. "Mechanism and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Dongkuk Medicine*, 1(1): p.102-1123. 2004.
DOI: <https://doi.org/10.1016/B978-0-12-374462-3.00007-1>
- [21] Lin KM., Masuda M., Tazuma 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In: Nann R.C. (eds) *Uprooting and Surviving. Priority Issues in Mental Health*, vol 2. Springer, Dordrecht. 1982.
DOI: https://doi.org/10.1007/978-94-009-7734-1_2
- [22] S. T. Hwan, K. M. Ya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young settlers in the early days of entry An Exploratory Study. *A Study on Korean Youth*, 49(5): pp. 333-358. 2008.
DOI: <https://doi.org/10.1111/j.1937-8327.2005.tb00349.x>
- [23] Rangaraj, A, The health status of refugees in Southeast Asia. In D. Miserez(Ed), *Refugees: The trauma of exile*. pp.39-44.1988.
DOI: <https://doi.org/10.7135/UPO9781843317784.036>
- [24] J. J. An, Y. H. Son, J. H. Ee.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Adaptation of South Korean Socia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Flexibility." *A Study on Unification Policy*, 22(2): pp.25-248. 2013.
DOI: <https://doi.org/10.15801/je.1.80.201103.137>
- [25] Kim Hyo-Jin and Jang Yoon-ok.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Youth Studies*, 18(7): pp.1-32.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8.23.8.311>
- [26] Black, J. S. Mendenhall, M., & Oddou, G.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International Adjustment: An Integration of Multiple Theoretical Perspectiv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pp.291-317. 1991.
DOI: <https://doi.org/10.5465/amr.1991.4278938>
- [27] Bandura, 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197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295X.84.2.191>
- [28] Merriam-Webster.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3.
DOI: <https://doi.org/10.1086/603287>
- [29] Gam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pp.127-136. 1993.
DOI: <https://doi.org/10.1080/00332747.1993.11024627>
- [30] Doby, John T, Boskoff, Alvin, Pendleton, William W.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achusetts. *Journal of Social Welfare*. 3: pp.148-157. 1973.
DOI: <https://dx.doi.org/10.2307/2577144>
- [31]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pp.232-253. 1987.
DOI: <https://dx.doi.org/10.4135/9781483325392.n11>
- [32] Searle, W. and Ward, C. "The predic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4): pp.449-464. 2001.
DOI: [https://doi.org/10.1016/0147-1767\(90\)90030-Z](https://doi.org/10.1016/0147-1767(90)90030-Z)
- [33] H. S. Kim. The Effect of Religiousness and Newness on Self-Efficacy: The Study on the Mot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Temple, *A Study on Religious Education*, 29: p.88. 2009.
DOI: <https://doi.org/10.1080/15507394.2014.898544>
- [34] Bandura, 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pp.191-215. 197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295X.84.2.191>
- [35] G. ok. Kim. "The Life Experience and Identity of the Wolnamin: The Study of the Vietnam People from the Below,"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3.
DOI: <https://doi.org/10.7591/9781501714771>
- [36] C. I. Ahn. "North Korea's past settlement plan after unification:Focusing on overseas cases,"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3. 2014.
DOI: <https://doi.org/10.17007/klaj.2015.64.11.001>
- [37] Montgomery, G. T. Comfort with acculturation status among students from South Tex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4: pp.201-22 3. 1996.

DOI: <https://doi.org/10.1177%2F07399863920142002>

- [38] M. Y. Soon.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wha Women University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Master Thesis. 2002.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9.61.2.008>
- [39] J. M. Ei.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culture adaptation in South Korea, Gyeonggi Univ.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8.
DOI: <https://doi.org/10.21193/kjspp.2015.29.3.009>
- [40] Gist. Effects of self-efficacy and post-training intervention on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complex interpersonal skills. *Personal Psychology*. 4 4: pp.837-861. 1992.
DOI: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1.tb00701.x>
- [41] Beiser, M.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Health and Welfare Canada. 1988.
- [42] Freedman SA, Brandes D, Peri T, Shalev A. Predictors of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Br J Psychiatry* 174: pp.353-9. 1999.
DOI: <https://doi.org/10.1192/bjp.174.4.353>
- [43] Schunk, D. H, Hanson A. R., & Cox, P. D. Peer model attributes and children's achievement behavior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9: pp.54-61. 198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0663.79.1.54>
- [44] S. Han. The Effects of Life Event Stress and Sexual Attitude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DOI: <https://doi.org/10.1515/sh-2017-0028>
- [45] S. H. Lim.. "A Predictive Model of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Psychological Trauma-Recovery Force Integration Model," Thesis of Doctoral Degree at Kyung Hee University, 2013.
DOI: <https://doi.org/10.1016/j.anr.2016.04.003>
- [46] W. C. Eu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djustm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9.
- [47] S. Han. The Effects of Life Event Stress and Sexual Attitude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DOI: <https://doi.org/10.1515/sh-2017-0028>

김 명 선(Myoung-Su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학석사)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 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5년 8월 ~ 2016년 8월 : LH토지주택공사
- 2017년 9월 ~ 현재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조사, 북한이탈주민